



ebook.
cult21.or.kr



서 산 문 화 원

서산문화원보 월간 **서산의 숨겨진** | 비매품(통권 제332호)

발행일 2011년 6월 10일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 | 등록일 1996년 5월 9일

발행인 이준호 | 편집인 김영철 | 인쇄인 이남진

발행처 서산문화원 | 주소 서산시 읍내동 516 | 전화 ☎041-669-5050

디자인 및 인쇄 서산인쇄공사(☎041-664-0001~3)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



우리
민
속
의
논
어



서산문화원 보(비매품) | 정기간행물 등록 총남 라 1092(1996. 5. 9)

서산의 음절

통권 제332호

2011 * 06



서산문화원



2011년 • 6월호



신윤복 「단오도」

단오는 일년 중에서
태양의 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해서
옛부터 여러가지 풍속과 민속놀이가 행해졌다.
대표적 놀이로는
그네뛰기와 씨름을 들 수 있다.

목 차

- 03 취임에 부쳐...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 04 서산지역 벼가릿대(禾竿) 신앙 연구 (이관호 / 국립민속박물관 과장)
- 08 서산의 문화인물 - 무학대사
- 10 어머니의 품속같은 군왕골 (정명재 / 서산시향토문화연구회원)
- 12 태풍 미리 알고 대비하자 (김정수 / 서산기상대)
- 14 조선시대판 쾌걸 조로, 아래적 (김종성 / 역사학자)
- 17 대한민국은 지금 오디션 열풍! (정덕현 / 문화평론가)
- 20 이베리아반도 속으로의 여행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 23 문화공간 - 국립극장
- 26 인터뷰 - 안다워 한묵연실
- 28 내 고향은 서산 (류인석 / 수필가)
- 30 제21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출전
- 31 제39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
- 32 제13회 청소년문학제 시상식
- 33 문화원소식

서산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여름특강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1. 6. 20(월)~ 2011. 6. 24(금) 09:00~18:00
- 강의기간 : 2011. 7. 4~ 8. 26 (8주)
- 접수방법 : 방문접수(100%), 오전 9시부터 정원내 선착순 (수강료 완납시 접수처리)
카드결제와 계좌이체는 불가합니다.
- 전화접수와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모든 강좌의 재료비는 별도이며 개인부담입니다.

강좌	교육시간	정원	수강료	재 료 비
문예창작	목 10:00~12:00	20	20,000원	필기도구지참, 교재상의후 구입
한글서예	수 13:30~15:30	20	20,000원	문방사우 준비
전통무용초급	수 10:00~12:00	20	20,000원	버선, 풀치마, 편안한 복장착용
전통무용중급	목 10:00~12:00	20	20,000원	버선, 풀치마, 편안한 복장착용
한국화	금 10:00~12:00	15	30,000원	80,000원, 문방사우준비
어린이북아트지도사	월, 수 10:00~12:00	20	40,000원	75,000원 (자격증전형료 50,000원별도)
가베지도사	월, 수 10:00~12:00	20	40,000원	교구임대비 50,000원 (수료증발급비용 없음)
POP예쁜글씨2급	월, 수 10:00~12:00	40	40,000원	53,000원 (자격증전형료 50,000원별도)
POP예쁜글씨3급	화, 목 10:00~12:00	20	40,000원	53,000원 (자격증전형료 50,000원별도)
품아트	월, 목 13:00~15:00	20	40,000원	150,000원 (자격증전형료 50,000원별도)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	화, 금 13:00~15:00	20	40,000원	150,000원 (자격증전형료 30,000원별도)
리본공예	화, 금 10:00~12:00	20	40,000원	140,000원 (수료증발급비용 10,000원별도)
요가지도사	월, 화, 금 10:00~12:00	25	60,000원	운동복 및 편한 복장착용
임산부펠트	화 13:30~15:00	20	20,000원	65,000원
임산부요가	수, 금 13:30~15:00	25	40,000원	운동복 및 편한 복장착용
바른글씨 예쁜글씨(아동)	월 17:00~18:00	20	20,000원	필기도구 지참 (초등 1~2학년 대상)

- 한국화, 전통무용, 한글서예는 2011년 상반기 수료증 발급자에 한해 6. 17(금) 미리 접수받습니다.
- 수강신청이 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 폐강
- 모든 과목 80%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임산부, 아동강좌 제외)
-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 과목은 성인대상입니다(자녀동반 금지)
- 수강료 환불 : 7.1까지 (7.1 이후 월별 수강료 환불) 환불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만 환불처리
특별한 사유없이 수강취소시 수강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강의계획은 홈페이지 참조(<http://seosan.cult21.or.kr>)
- 문 의 : 669-5050(서산문화원 사무국)
- ※ 본 프로그램은 문화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임새에 부쳐...



서산문화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이준호

존경하는 충청남도 문화가족 여러분 금번 충청남도 지회장을 맡은 서산 문화원장 이준호,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가 바로 도래했습니다. 세계는 글로벌화되어 시시각각 변하는 초고속화된 디지털 문명속에 묻혀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문화는 뿌리채 뽑히는 듯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꿈과 지성을 파는 드림소사이터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성장과 변화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시기를 맞아 충청남도의 문화 역량을 키워야 할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책임감의 막중함에 어깨가 무거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지회를 이끌어 오신 정정희 지회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원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문화 발전에 성심을 다하고 계신 각 문화원장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문화원의 역사가 반백년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관한 어느 분야보다도 낙후되어 있는데도 정책의 미흡, 예산의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21세기 초부터 문화가 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도 어느 것 하나 혁신되는 경향없이 세계속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문화인들은 새로운 창의력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창출되는 무한의 가치를 되살려내야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서 희생과 봉사로 일관한다면 충분히 선진문화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원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가는 봉사의 선봉에 설 것을 약속드리오니 도내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와 문화원간의 소통에 중점적 노력을 기울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부상조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문화와 예술의 상생을 위해서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해 서로의 책무에 열중하고 서로 반목하지 않는 화합의 체계화를 위해 좋은 아이템을 발양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족 여러분의 고충과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에 전달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일련의 사안들은 저 혼자서는 엄두도 못내는 일입니다. 각 문화원장님들과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간절히 요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내 문화가족 여러분! 만물이 성장하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하시는 일마다 성취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지역 벧가릿대(禾竿) 신앙 연구

이 관 호

(국립민속박물관 과장)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서산지역 벧가릿대 신앙의 전승양상
 - 1. 벧가릿대 신앙이란?
 - 2. 건립위치
 - 3. 벧가릿대의 형태
 - 4. 벧가릿대 제의(祭儀) 과정
- IV. 맺음말 - 서산지역 벧가릿대 신앙의 특징

1. 들어가는 말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민족은 오랫동안 농경민족으로써 농업생산의 주기에 따라 농경의례가 정착되어 왔다. 특히 설을 전후로 하여 새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예축(豫祝)하는 축원의례는 농경의례 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월은 농촌의 생업력에서 본다면 농한기이지만 새해가 시작되는 달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조건은 이 시기에 모든 식물의 생장(生長)을 중단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장의 계절이 오기를 기다리게 한다. 이때는 새로운 시간의 창조를 위한 신성의례(神聖儀禮)와 건강하고 풍요로운 새 생활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축원(祝願), 점세(占歲) 의례를 행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에 많은 정초 행사를 치렀다.

이러한 정초행사는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되어 대개 정월 대보름이면 마무리된다. 즉 새해 첫 날 조상에게 바치는 차례(茶禮)를 필두로 시작된 각종 농경의례는 두 번째 명절인 정월 대보름 날 액연(厄鰲)을 날림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농경사회에 있어서 정초에 치러지는 이러한 농경의례들은 대개 조상신이나 마을신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의례로서 보다 간접적인 상징성을 지닌다. 반면 이러한 간접적인 상징성을 지닌 각종 농경의례와는 달리 정초 농경의례가 끝나갈 무렵 농부들의 진솔된 마음과 염원을 담은 보다 직접적이고도 실제적인 상징성의 농경의례가 있었으니 ‘벚가릿대 세우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전통사회에 있어서 농가에서는 연초에 한 해 농사의 풍흉을 미리 예측하는 의례가 많이 행해졌다. 농사의 풍흉은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시점에서 풍농을 기원하는 것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욕구의 소산일 것이다. 벚가릿대는 이러한 어려운 살림살이를 극복하기 위한 욕구의 소산물로서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이나 보름에 세워져 이월 초하루에 눕히는 풍농 기원의 레이자 놀이이다. 여기서 계절적으로 이월 초하루는 해동(解冬)이 되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 이때 벚가릿대에 매달아 둔 오곡종자의 싹이 튼 것을 보고 풍흉을 미리 예측한다. 이처럼 벚가릿대 세우기는 정월 보름 경부터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이월 초하루에 걸쳐 펼쳐지는 농경의례로, 농사의 풍흉을 점침은 물론 일의 시작을 알리는 일꾼들을 위한 입간민속(立竿民俗)의 상징물로 자리 잡아 왔다.

한편 송석하는 1934년에 발표한 『풍신고(風神考) 부(附) 화간고(禾竿考)』⁰¹⁾에서 현재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벚가릿대 농경의례는 한강 이남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⁰²⁾ 입간민속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즉 그는 옛 문헌인 이자(李耜)의 『음애일기(陰崖日記)』나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誌)』와 일부 현지조사자료 등을 예로 들면서 벚가릿대의 분포지역을 한강 이남으로 규정⁰³⁾하고 있다. 이외에도 송석하 이후, 단편적으로 조사된 자료에서도 대개 한강이남 지역에서 벚가릿대와 관련된 자료가 찾아지고 있다.

01) 송석하, 1934, 「風神考(附禾竿考)」 『震檀學報』1, 진단학회, 160~162쪽

02) 그는 분포지역을 논하면서 벚가릿대를 세우는 의례가 이미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세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송석하, 1934, 「앞 글」, 160쪽)

03) 송석하의 연구성과 이후 벚가릿대에 대하여 개론서나 보고서 등에 단편적으로 전승양승만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 전국적으로 조사된 연구 성과가 없으므로 지역분포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이를 따르고자 한다. 단 송석하 역시 벚가릿대의 지역분포를 한강 이남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한강[京城] 이남지역에서 널리 행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충청남도 서산·당진·태안 지역을 비롯한 충청 서북부지역과 전라도 진도 및 해남 일부 지역, 그리고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벚가릿대 세우는 풍습에 대한 자료가 전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로 보아 벚가릿대는 대개 한강이남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던 농경의례로 일제시대 때부터 급속히 소멸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벚가릿대의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옛 문헌사료⁰⁴⁾나 민속관련 개설서⁰⁵⁾와 보고서⁰⁶⁾, 그리고 사전류⁰⁷⁾ 등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秋葉隆의 『거제도(巨濟島)의 입간민속(立竿民俗)』과 송석하의 『풍신고(風神考) 부(附) 화간고(禾竿考)』 이외에는 이렇다할 만한 연구 성과가 전무(全無)한 형편이다. 특히 秋葉隆과 송석하의 성과를 제외한 이들 자료는 대개 벚가릿대의 제작방법 및 형태, 세우는 목적, 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벚가릿대 농경의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벚가릿대에 관한 현재의 조사 연구 성과는 아주 초보적인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거기에 농촌사회의 급속한 구조적 변화와 기계화에 의한 영농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농경의례를 우리의 곁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이러한 벚가릿대 농경의례는 충청도 내포지역⁰⁸⁾인 서산·당진·태안 일대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많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충남 서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전승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04) 문헌사료로는 이자(李紆)의 『음애일기(陰崖日記)』나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記)』, 권용정(權用正)의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 부(附) 세시잡영(歲時雜詠) 등이 있다. 이외에 벚가릿대와 관련된 자료로는 각종 일기류나 문집, 그리고 풍속화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05) 이와 관련된 개설서로는 『한국민속학 개설』(이두현 외, 1983, 학연사), 『한국세시풍속연구』(임동권, 1985, 집문당) 등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개설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06) 보고서로는 『당진의 민간신앙』(이인화, 1996, 당진문화원), 『고고와 민속』 창간호(이필영, 1998, 한남대학교박물관) 등이 있다.

07) 사전류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및 『한국민속대관』 4-세시풍속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2) 등이 있다.

08) 원래 포(浦)란 배가 드나드는 물가나 갯벌을 일컫는 말로, 여기서 내포(內浦)란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휘어 들어간 만(灣)의 안쪽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국적인 분포상황을 보면 경남 남해군에 내포현(內浦縣)이 있었으며, 창원시에 내포리(內浦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택리지(擇里志)』 팔도총론(八道總論)에 나오는 내포로 충청남도 가야산(伽倻山) 둘레에 있는 10개 縣을 총칭한다. 즉 삼교천 서쪽에 아산(牙山)·당진(唐津)·면천(沔川)·홍주(洪州)·덕산(德山)·해미(海美)·결성(結城)·보령(保寧)·서산(瑞山)·태안(泰安)을 포함한 지역을 내포지역(內浦地域)이라고 한다. 『擇里志』 八道總論 忠清道條. 이로 보아 예로부터 내포지역이라 함은 홍주를 중심으로 한 충남 서북부 지역을 일컫는다. 이를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북동에서 남서로 길게 뻗어 있는 차령산맥을 기점으로 그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아산·보령시, 홍성·당진·태안군과 예산군 일부지역(차령산맥 서쪽에 있는 예산읍과 삼교읍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예산군의 경우 택리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삼교천을 중심으로 한 삼교 평야가 이 범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를 지리적 여건으로 구분하여 볼 때, 그 문화적 배경이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한 홍주문화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내포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다. 즉 문헌자료와 현지자료를 통해 벧가릿대에 대한 역사나 기원, 분포현황, 전승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현재 가장 널리 전승되고 있는 서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인근 지역의 벧가릿대 농경의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사실 그대로 기록⁰⁹⁾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에 대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2. 서산지역 벧가릿대 신앙의 전승양상

1. 벧가릿대 신앙이란?

벧가릿대는 짚이나 형짚 등으로 벼·보리·조·기장·수수·콩·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긴 장대에 매단 다음, 우물이나 마당 또는 외양간 옆에 높다랗게 세워 놓고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세우는 날짜에 있어서도 당진 기지시리와 같이 음력으로 정월 열 나흘날 벧가릿대를 세우기도 하나 서산지역에서는 대개 정월 보름날 벧가릿대를 세워 이월 초하룻날 벧가리 고사를 지낸 다음, 벧가릿대를 눕힌다. 명칭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벧가릿대·벧가리·노적가리·벧가리 장대(충청도, 전라도), 낱가릿대·유지기·유지지·주저리·유두새·노적·봉오리·오조지·농사장원기(전라도) 등으로 불리며, 한자어로는 화간(禾竿)·화적(禾積)·도간(稻竿)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현재 서산지역에서는 대개¹⁰⁾ ‘벧가릿대’라 불리고 있으나 인근지역의 경우 ‘노적가리’¹¹⁾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전라도 지역의 경우에는 ‘유지기’, ‘농사장원기’, ‘낱가릿대’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09) 필자는 2001년과 2002년 2년여에 걸쳐 음력 1월 15일(정월대보름) 및 음력 2월 1일(머슴날)을 기해 내포지역인 충남 서산·당진·태안 지역에서 벧가릿대 세우기 및 벧가릿대 내리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2001년도에는 서산시 인지면 차리 1구 벧가릿대(참여조사),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 벧가릿대(구술조사), 서산시 대산면 운산 5리 벧가릿대(참여조사),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벧가릿대(참여조사), 당진군 당진읍 구룡리 벧가릿대(참여조사) 등 5개 마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도에는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벧가릿대(참여조사), 서산시 온석동 벧가릿대(참여조사),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벧가릿대(참여조사), 태안군 이원면 관리 벧가릿대(참여조사) 등 4개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외에 서산시 지곡면 환성 2리와 3리, 그리고 지곡면 연화리, 지곡면 산성 2리 등 4개 마을에서도 벧가릿대를 세우고 벧가리제를 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서산시 대산면 운산 5리 등 현재 서산지역을 포함한 당진 태안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벧가릿대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음.

11) 현재 전승되고 있지는 않으나 아산시 도고면 신용 1리와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하산마을의 경우에는 ‘노적가리’란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구술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음.(자료제공:한남대 김효경)

태조 이성계의 스승 무학대사

무학대사는 인지면 애정리 출생이라고 전한다. 그는 고려말 조선초기의 역사의 격동기를 살다간 인물이며, 태조 이성계의 스승으로 그 이름이 높다. 무학대사와 관련된 설화들이 많은데, 특히 서산 지역에 이와 관련된 설화가 많이 전하고 있다. 학돌재는 무학대사가 탄생한 곳이라고 전하며, 학바위는 학이 무학대사를 품고 있었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무학대사는 1327년 고려 충숙왕 14년에 태어났다. 전하는 설화에 의하면 무학대사의 아버지가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있었다. 군수가 그 부인을 관아에서 불러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관아에 도착하여 군수가 얼굴빛이 창백하여 물은 즉 관아에 오는 도중 아이를 낳아서 그렇다고 했다. 군수가 아이를 어떻게 했냐고 물었고, 그리하여 급히 아이낳은 곳을 가 보았더니 학이 아이를 품고 있었다고 하여 이 아이 이름을 춤출 무(舞)

학 학(鶴)인 무학으로 지었다고 전한다.

18세가 되던 해에 송광사 소지선사에게 출가하여 이후 용문산 혜명국사에게 사사를 받았다. 이후 수행에 정진하면서 부도암, 묘향산 금강굴에 머물렀다. 27세 때에는 원나라에 유학하여 연경에서 지공화상에서 사사받고, 이 와중에 나옹선사를 만났다. 귀국하여 천성산 원효암에 머물고 있던 나옹선사를 찾아가고 또 다시 신광사에서 나옹선사를 만났다.

35세인 공민왕 10년(1361) 나옹선사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도를 닦았다. 47세에는 처음 출가하였던 송광사 주지를 하게 되고, 나옹선사가 의발을 전해주었다. 이는 선종에서 법을 전하는 표징으로 이를 통해 확실한 사제지간이 된다. 지금도 지공화상, 나옹선사, 무학대사 3화상의 탕화가 그려지게 된 이유이다.

50세에는 나옹선사가 회암사로 초청을 하게 되고, 수좌가 된다. 58세인 우왕

10년(1384년) 석왕사에서 이성계가 꿈에 대한 풀이를 무학대사에게 물어보게 된다. “꿈에 만집의 닭이 한꺼번에 울어 보이며, 천집의 다듬이 소리가 일시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는 것도 보이고, 거울이 떨어지는 것도 보였습니다. 또 허물어진 집에 들어가서 서까래 세 개를 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라고 물어 보았다. 이를 듣고 대사는 이성계가 장차 왕이 될 인물이라고 말해준다.

1392년 왕사로 책봉된 후 계룡산 일대를 수도의 후보지를 살피기도 하였는데, 1394년 한양의 지세를 살피던 중 삼각산, 인왕산, 남산의 지세를 보고 한양을 새 도읍지로 정하였다. 이는 풍수지리적인 입지에 의해 조선초기에 기틀을 잡은 큰 일이었다. 이후에도 태조 이성계의

결에 있으면서 큰일이 있을때마다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77세에는 금강산의 진불암에 머물게 되고, 1405년 79세의 나이로 금강산 금장암에서 입적하였다.

지금도 간월도는 무학대사와 관련된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데,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불도에 전념하던중 달을 바라 보며 득도했다해서 그 후부터 간월암(看月庵)이라 불렸다고 한다. 간월도에서 나오는 어리굴젓은 이성계에게 진상 하였다고도 하며, 간월도 어리굴젓 상표 중에 무학표도 이런 이유에서 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려말 조선초기의 격동기를 살다간 무학대사는 조선건국과 관련된 태조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었던 선사 중의 한분이다.



(부석면 간월도리의 간월암)

어머니의 품속같은

군 왕 골 (君王谷)



서산시향토문화연구회원 정 명 재

가야산(伽倻山) 석문봉(石門峯)에서 북쪽으로 수정봉 줄기와 상왕산(象王山) 줄기가 힘차게 뻗어 군왕골(君王谷)을 감싸 안고 있다. 상왕산은 코끼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개심사(開心寺), 보원사(普願寺), 문수사(文殊寺), 일락사(日樂寺) 등 많은 사찰을 거느렸던 불교의 성산(聖山)이다.

석가(釋迦)의 어머니 마야부인이 흰 코끼리 태몽을 꾸고 석가를 탄생하여 코끼리는 불교에서 신성한 동물로 숭배하고 귀한 예우를 받는다.

상왕산은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서 서해안이 시원스럽게 한눈에 들어오고 경관이 아름다워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산이다. 수정봉 자락엔 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진 대성(大城)과 복신굴이 있다. 세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져 터만 남아있던 대성은 수련원이 되어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함성이 그 옛날 대성의 영화를 말해 주는 것 같다. 상왕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군왕골(君王谷)을 가려주는 산줄기를 능화(菱花)날 또는 능현(菱峴)날이라 부른다.

조선 태조임금이 왕사(王師)로 봉하였고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전해오는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여기를 지나면서 옥관자(玉貫子) 서말(三斗)의 명당이 있다하여 그 명당을 찾아 묘(墓)를 쓴 모양이 마치 능화(마름꽃)가 피어난 모양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관자(貫子)는 조선시대 기혼남성이 상투를 틀고 머리에 망건을 사용할 때 망건의 좌우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로 관복에 따라 재료와 문양이 다른데 옥관자는 정1품에서 사용하는 관자로 정승 벼슬이 꿰어지지 않는 명당이라는 곳이다.

무학대사는 인지면 애정리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오며 천문, 지리, 음양도참설(陰陽圖讖說)에 밝았고 파자 점(破字 占)과 해몽에도 능하여 후일 이성계가 왕이 될 것이라는 해몽과 파자 점이 맞아 떨어져 더욱 유명해졌다 한다.

이 능화날을 지나면 산줄기하나로 작은 일집과 큰일집이라는 두 계곡으로 나뉜다. 이곳에는 산 중턱에 농지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넓고 평평한 분지가 있는 곳이다. 큰 계곡을 큰 일집, 작은 계곡을 작은 일집이라 부른다. 옛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 온다.

어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곳에 모여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지 궁금하다. 그 곳의 정상에는 신선(神仙)바위라는 그리 크지 않은 바위산 봉우리가 있는데 이곳은 신선들이 내려와 놀던 곳이라 하며 부석면의 도비산(島飛山)과 마주하고 있다.

신선바위 밑에 굴이 있어서 이곳에 불을 지피면 도비산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그 위쪽 옆의 동쪽으로는 너른 바위절벽이 있는데 이 바위를 거적바위라고 부른다. 바위 밑에 넓은 공간이 마치 거적집 같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약초꾼 나물꾼들이 비를 만나면 이곳에서 비를 피했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들을 모아보면 백제 부흥운동(百濟 復興運動)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작은 일집과 큰일 집은 군왕골에 상왕이 군사를 이끌고 웅거하며 살았다는 전설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장기전에 대비하여 농사를 지었던 곳으로 생각되며 바위산에서 군호(軍號)를 기다리는 봉수군(烽燧軍)을 신선으로 보고 그 바위산을 신선들이 노니는 신선바위라고 했던 것 같다.

부석면의 도비산과 밤에는 햇불 낮에는 연기로 봉수군이 군호를 주고받는 것이 마치 이곳에서 불을 지피면 부석의 도비산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거적바위는 군사들이 사용하던 초소나 지휘소로 생각이 된다.

당시 불교국가였던 백제는 마애삼존불상이 길목 지켜주고, 보원사와 개심사를 비롯한 가야산의 많은 사찰의 도움을 받으며, 불교의 호국사상으로 가득한 군왕골은 어머니의 품속같이 포근하여 안심하고 나당연합군을 물리치고 빼앗긴 조국을 찾는 부흥운동의 길지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군왕골(君王谷)은 전설만큼이나 주는 것도 많았다. 봄이면 산나물이며, 사시사철 각종약초와 가을에는 밤, 머루, 다래, 상수리를 비롯한 먹을거리가 있어 사촌네 가는 것보다 가을 군왕골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이 전해온다.

사람들은 군왕골의 산신이 점지해주는 영약을 찾아 여가가 생길 때마다 이웃과 같이 약초를 찾아 나섰고 구해온 약초는 혼자만 쓰지 않고 급한 환자가 생기면 서로 나누어 썼으며 울창한 숲은 누구에 게나 떨감을 주어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군왕골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무엇이든지 조건 없이 주는 자상한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곳 이다.



태풍

미리 알고 대비하자

서산기상대 김 정 수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재해. 재해는 불가항력일 때도 있으나, 방심이 불러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특히 충남서해안지역은 해상으로 돌출된 지리적 특성으로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 사시사철 위험 기상의 전선에 놓여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더해져 재해의 원인도 다양해지고 규모 또한 국지적으로 대형화되고 있다.

2010년 9월 2일 새벽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 제7호 태풍 곤파스(KOMPASU)가 지나갔다. 곤파스는 서산지역에 많은 기억을 남기고 동해상으로 빠져 나갔다. 곤파스가 통과하면서 서산에서 관측이 시작된 후 최대순간풍속이 나왔고, 송림공원의 울창한 소나무는 넘어가거나 부러지고, 전봇대는 넘어져 서산 전역에 정전이 되었고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하였다. 불행 중 다행일까 곤파스의 통과 시간이 새벽이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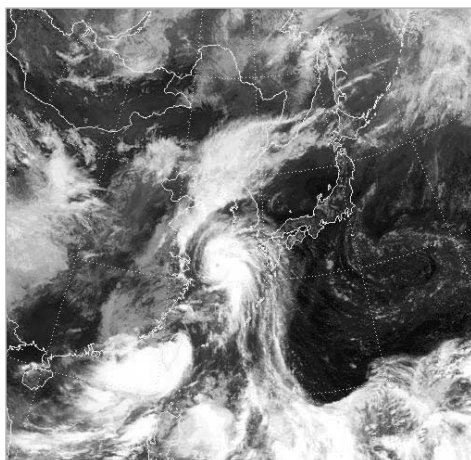
이렇게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태풍은 왜 생기는 것일까?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이로 인해 지표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대륙과 바다, 적도와 극지방과 같이 지역 조건에 따른 열적 불균형이 일어난다. 태풍은 바로 이와 같은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에너지로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채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이다. 태풍은 수온 27℃ 이상의 해면에서 발생하며 열대 해양의 서쪽에서 많이 나타난다. 또한 적도를 사이에 둔 남·북위 5도 이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태풍은 북태평양의 남서해상에서 발생하여 중심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의 열대저기압이 될 때 정식으로 호칭을 받는다. 매년 20~30여개가 발생하고 이동하면서 한반도 지역에는 직·간접적으로 2~3개 정도가 영향을 주고 있다. 태풍에 부여하는 이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의 태풍회원국에서 각 10개씩 제출하여 만든 140개 태풍 이름을 발생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데 2011년 1호 태풍은 미국에서 제출한 “Aere(에어리)”가 될 것이며 그 뜻은 폭풍을

의미한다. 태풍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Cyclone)이라고 한다.

태풍이 접근하면 폭풍과 호우로 통신 두절과 정전이 발생하며, 하천이나 계곡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매우 강한 태풍의 힘은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보다 만배나 더 큰 에너지를 가질 정도로 위력적이다. 태풍의 중심 부근에는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 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며, 이 태풍의 눈 바깥 주변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분다.

태풍의 진로는 발생 초기에 일반적으로 서북서진하다가 점차 북상하면서 편서풍 지역에 이르러 진로를 북동쪽으로 바꾸어 진행한다. 태풍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이 왼쪽 반원에 비해 풍속 강하고 피해가 큰데 이를 위험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 한다. 보통 북태평양고기압을 오른쪽에 두고 그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므로, 태풍의 이동 방향과 속도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와 세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후 태풍은 해수면온도가 낮은 지역까지 올라오면 그 세력이 약해지며, 육지에 상륙하면 더욱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데다가 지면 마찰 등의 영향이 더해져 빠른 속도로 약화되면서 그 생을 끝내게 된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포함한 태풍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태풍은 중요한 수자원의 공급원으로 물부족 현상을 해소한다. 한 예로 1994년 여름은 유난히 덥고 길어 가뭄이 극심했었다. 그나마 더위를 식혀주고 가뭄을 어느 정도 해갈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8월에 내습한 태풍 ‘더그(Doug)’로서 사람들은 이를 효자 태풍이라고 불렀다. 또한 태풍은 저위도 지방에서 축적된 대기 중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하여 지구상의 남북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플랑크톤을 용승 분해시켜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대기의 난폭자인 태풍은 동시에 유용한 면도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대기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태풍이 오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태풍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성에서 촬영한 태풍 곤파스의 모습



태풍 곤파스에 의한 소나무 유실

조선시대판 쾌걸 조로, 아래적



19세기 전반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이곳을 무대로 한 의적 소설인 존스턴 매컬리의 『쾌걸 조로』에서 주인공 조로는 권력을 가진 악당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그는 칼로 상대방의 몸에 Z자를 새겨서, 자신이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긴다. 재물을 나누어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대담한 쇼맨십까지 보여주니, 힘없는 사람들로서는 통쾌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쾌걸 조로는 정의로운 데다가 대담하기까지 한 의적이었다.

쾌걸 조로를 연상시키는 것이 지난 5월 24일 종영된 MBC 드라마 〈작패〉에 나온 아래적들이다. 이들은 주로 탐관오리나 조직폭력단의 재물을 빼앗아 빈곤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대자보를 통해 이런 활약상을 홍보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짜릿함을 안겨주었다. 심지어 이들은 암행어사 일행을 가장 해서 전라도 고창현감을 습격하기도 했다.

쾌걸 조로와 마찬가지로 아래적도 일부러 흔적을 남겼다. ‘내가 왔다’는 의미의 아래(我來)란 글자를 쓴 뒤 ‘직인’ 까지 찍는 것이다. 그들이 아래적(我來賊)이라 불린 것은 그 때문이다. 비슷한 점이 또 있다면, 『쾌걸 조로』와 〈작패〉의 시대적 배경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쾌걸 조로』는 19세기 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작패〉는 조선 제25대 철종의 즉위(1849년) 이후를 다루었다. 다른 게 있다면, 조로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데 반해 드라마 속의 아래적은 단체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드라마 속의 아래적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산속 깊은 곳에 본부와 훈련장까지 만들어 두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19세기 전반의 문학작품 속에서도 아래적이 인기를 끌었다는 점이다. 관료 겸 화가인 장한중(1768~1815)이 편찬한 『어수신화』란 민담집에서 그런 분위기를 포착할 수 있다. 어수신화(禦睡新話)는 ‘졸음(睡)을 막는(禦) 새로운(新) 이야기(話)’라는 뜻이다. 『어수신화』 속의 아래적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창작품은 아니었다. 13세기 전반에 활동한 중국 송나라 때 작가인 심숙이 편찬한 『해사』란 민담집에 등장하는 아래야(我來也) 이야기를 변안한 것이다. ‘아래’ 나 ‘아래야’ 나 의미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당시 조선·중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조선·중국의 아래적·아래야는 글귀를 남긴 데 반해, 미국의 패걸 조로는 칼자국을 남겼다. 같은 의적이지만, 한쪽은 선비 스타일이고 다른 쪽은 무사 스타일이었던 것이다. 선비문화 혹은 사대부 문화가 지배한 조선·중국과 카우보이 문화가 지배한 미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나라 때의 아래야 이야기를 조선 스타일로 재해석한 아래적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의적을 얼마나 영웅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포도청에 붙잡힌 아래적이 탈출에 성공하는 과정을 다루는 『어수신화』의 기법 속에서 그런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말처럼 아래적도 어쩌다 붙잡히고 말았다. 거물을 체포하고 한껏 고무된 포도대장은 “사형까지 몰고 가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아래적도 빠져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했다. 민담집에서는 당연히 의적이 포도대장을 이기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의적이 얼마나 기막힌 방법으로 포도대장을 이기는가에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자.

아래적은 옥문을 지키는 포졸을 매수했다. 어느 산, 어느 골짜기, 몇 번째 소나무 밑에 300냥을 감춰뒀으니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면서 포졸의 환심을 산 것이다. 전남 영암 지방의 쌀값 변동을 분석한 어느 논문에 따르면, 1744~1850년에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은 0.4~3.0냥 수준이었다. 이것만 봐도 300냥이 얼마나 큰돈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아래적을 신뢰하게 된 포졸은 포도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그에게 귀띔해 주었다. 얼마 후 포졸은 ‘내일 포도대장이 아래적을 재판한 뒤 사형에 처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해서 아래적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아래적이 청탁을 했다. “나를 잠깐만 풀어주면 통행금지 해제 전까지 돌아오겠소.” 포졸은 부탁을 거절할 길이 없었다.

아래적은 약속대로 새벽 4시경 돌아왔다. 그 포졸이 내쉬었을 안도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날 포도대장의 주관으로 열린 재판에서 아래적은 곤장을 맞고 석방되었다. 포도대장은 그가 아래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저 혼한 잡범일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1996년 홍콩 영화 <아래야>



포도청이 있었던 자리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아래적이었다. 그렇다면 포도대장이 그를 풀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포도대장도 포졸처럼 뇌물을 받았을까?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포졸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온 아래적은 그 길로 포도대장 집으로 향했다. 그 집 침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방문을 열어보니 포도대장 부부가 곤하게 잠들어 있었다. 애정이 식어 있었던지,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명이 더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아래적은 옷을 훌쩍 벗고 부부 사이로 들어가서 두 사람을 옆으로 밀어냈다. 그런 다음 이부자리 위에 ‘아래’란 글자를 써놓고 감옥으로 유유히 되돌아왔다. ‘아래’란 표식만 남기면 그만이지 굳이 옷까지 벗을 필요는 없었는데도 그는 그렇게 여유를 부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란 포도대장은 아래적이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출근한 그는 “저 자는 아니야!”라며 곤장 몇 대 때리고는 아래적을 풀어주었다. 실수로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는 도로 나무로 올라갔다.

요즘 사람들은 말단 순경이 사는 집에 잘못 들어간 도둑을 두고도 ‘재수 없는 도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래적은 말단 순경이 아니라 치안 총수인 포도대장의 침실에까지 들어가서 옷을 훌러덩 벗은 뒤 글귀를 남기고 여윌롭게 걸어 나왔다. 물론 이것은 민담 속의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통쾌해 했다는 사실이다. 포도대장이 의적에게 당하는 장면을 보고 통쾌해 했던 것이다.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사람들도 의적을 영웅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력층의 재물을 빼앗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측면 못지않게 이처럼 지배층을 비웃고 조롱하는 측면 때문에 사람들은 의적 이야기에 열광했던 것이다. 그만큼 봉건적 지배권력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이다.

드라마 <작패>는 종영되었지만, 의적을 다룬 드라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앞으로도 계속 생산될 것이다. 아래적이나 꽤걸 조로 외에도 홍길동·일지매·임꺽정·장길산 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할 것이다. 서민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는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의적은 계속해서 인기 있는 문화 코드로 남아 있을 것이다.



글쓴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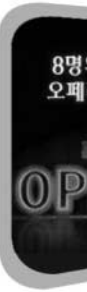
김 종 성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동양사 전공 박사수로
-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한국사 인물통찰’ 강의 중
- 문화재청 헤리티지 채널 ‘TV 속 역사읽기’ 연재 중
-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읽기’ 연재 중

대한민국은 지금 오디션 열풍!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2년 MBC '목표달성토요일'에서 진행됐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악동클럽'은 소소하게 지나가 버렸고, 2006년 박진영이 진행한 스타 메이킹 프로그램 '슈퍼스타 서바이벌'은 전국과 해외에 걸친 사전 오디션과 서바이벌 형식, 시청자들의 직접 투표방식 등 작금의 '슈퍼스타K'와 상당히 유사한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다지 화제를 몰고 오지는 못했다. 2007년도 MBC에서 방영됐던 신인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쇼바이벌'은 쇼의 형식으로 신인들의 무대대결을 보여주었지만 역시 반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슈퍼스타 K2' 이후부터는 양상이 다르다. 이제 이 오디션 형식은 이른바 '되는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 후 MBC는 '위대한 탄생', '나는 가수다', '신입사원' 등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연달아 내놓았고, KBS는 '휴먼서바이벌 도전자'를 또 SBS는 '기적의 오디션'을 방영 예정중이다. 케이블에 생겨난 '오페라스타'와 생겨날 '코리아 갓 탤런트', 또 이미 지원자 모집에 들어간 '슈퍼스타K3' 등을 생각해보면 올 한 해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하게 만드는 걸까.

가장 핵심적인 힘은 '경쟁 시스템'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바로 이 경쟁 시스템을 핵심으로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이른바 '리얼리티TV' 열풍과 함께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자리 잡은 프로그램 형식이지만, 국내로 들어오면서 '경쟁'이 갖는 의미는 각별해진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다름 아닌 우리 사회에 '청년실업' 같은 대표적인 불공정한 경쟁시스템들을 자꾸만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슈퍼스타K2'의 성공은 어찌 보면 그 '공정함'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고, '위대한 탄생'에 대중들이 열광하는 그 이면에는 '멘토링'이라는 구원의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경쟁에 지친 대중들에게 이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환상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단지 프로그램 외적인 상황에 의해 일련의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거둔 경이적인 대중적 성공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 외적인 환경은 기획적인 것이지만, 이 기획을 실현시키는 것은 내적인 완성도다. 그런 점에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거둔 성과의 반은 바로 이 끊임없이 몰입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내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음악이라는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소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좀 더 넓은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흘러간 명곡들을 부활시켰다. 이문세나 마이클 잭슨, 조용필의 노래가 과제로 내려지는 것은 그 음악이 좀 더 폭넓은 세대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이란 점에서 더 강력하다. 대중들은 이렇게 발탁된 가수들의 감미로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진다. 그 위에 치열한 경쟁구도를 얹어놓으니 이 감미로움은 팽팽한 긴장감까지 확보하며 대중들을 감성적으로 묶어놓게 된다.

'나는 가수다'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변형으로서 이 무대에서의 음악에 집중한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하는가에 대한 오디션 형식 특유의 힘은 매번 가수들을 긴장시키고, 보는 이들을 음악에 집중하게 만든다.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가수들이 벌이는 이 진검승부는 그래서 '신들의 제전'이라고까지 상찬되었다. 이들이 이 무대 위에서 부르는 노래는 그대로 음원차트를 거의 휩쓸었고, 심지어 가요계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떤 변화마저 일으키고 있다. 보는 음악에서 듣는 음악으로의 회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슈퍼스타K2'가 케이블에서 물꼬를 열고, '위대한 탄생'이 지상파에서도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 '나는 가수다'는 지상파 버전으로 재해석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사례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 '키스 앤 크라이'나 '불후의 명곡 시즌2' 같은 지상파 버전으로 변형된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열풍인 만큼 그것이 야기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은 결국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쟁을 통해 최후의 1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

의 장르별 대표 가수들이
와 스타로 다시 태어난다.

2011
ERASTAR

으로 그들의 꿈이 이뤄졌다고 말하기는 선부르다. 이미 '슈퍼스타K'의 원년에 슈퍼스타로 뽑힌 서인국이 과연 현재 진정한 슈퍼스타인가는 의문이다. 작년 신드롬을 만들었던 허각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음반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결국 '슈퍼스타K2'에서 최후의 11인까지 남은 이들은 가요계 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사에 들어가 다시 준비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렇게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도 케이블 출신 스타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그들을 지상파는 배타적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모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쟁이 실상과는 다른 환상이 많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현실의 출구가 막힌 지망생들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다. 한 방에 인생역전을 이뤄보겠다는 로또 심리도 들어있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사례는 참가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형식상 일반인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네 정서에 일반인들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노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형편이다. 연예인들이야 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생활 노출이 가능하다 여겨지지만 일반인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디션 형식은 일반인이 연예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에 있어서 애매한 입장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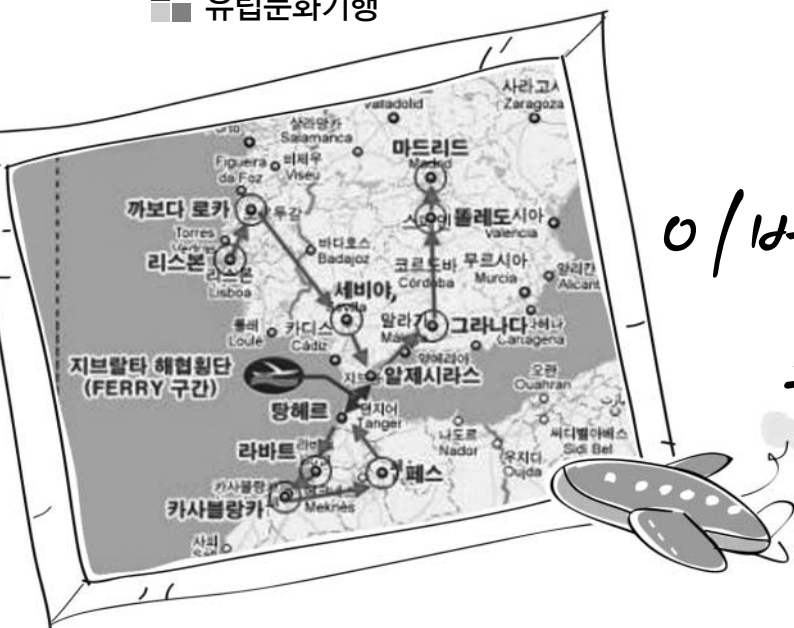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은 지금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치열한 경쟁과 그것이 과연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며 대답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열풍 속에 숨겨져 있는 과도한 로또 심리나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심어지는 '경쟁을 당연시하는' 태도, 또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생활 침해 같은 부작용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꿈과 성공에 대한 달콤함 이면에, '왜 우리는 이토록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경쟁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다.



글쓴이 소개

정 덕 현

- 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
- KBS 1라디오 '성공예감'의 고정 패널
- 문화비평 블로그 더키앙(the kian.net) 운영
- 저서 : 대한민국 남자들의 숨은 마흔 찾기



이베리아 반도 속으로의 여행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여행은 항상 설렘으로 시작되지만 이번 이베리아 반도속으로 들어가서 서유럽의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스페인을 간다는데 큰 의미를 두게 된다.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 모두 흥미진진한 곳이다. 지도에서나 봄직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지중해의 꽃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의 모로코 땅을 밟는다는 것도 가슴을 들뜨게 했다. 한 두번 떠나는 여행도 아니건만 이번 여행은 소풍을 가는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흥분되고 있었다.

늘상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의 항공문화가 세계최고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에는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을 이용했는데 기내 서비스의 질이 한국 항공사보다는 많이 떨어짐을 느꼈다.

12시간여 끝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여 3시간을 기다리고 포르투갈 항 작은 비행기로 갈아탔다. 밤 11시 40분에서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지만 호텔 역시 1급이라는 곳이 한국의 모텔 수준도 안 된다. 하여튼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를 배출한 포르투갈이다. 에우제비오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고 현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라는 걸출한 선수를 배출한 나라다. 내가 축구광이다 보니 우선 축구 이야기부터 나오는가 보다.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17,000불 정도이니 경제성이 우리나라 수준급이라 생각했는데 현재 IMF를 겪는 실정이라 사정이 말이 아니란다. 그래도 그렇지 물 한병에 3유로라니, 한국 돈 5천원 주고 어떻게 물 한병을 사먹겠나. 한국에서는 몇 백원하는 물인데 쓸쓸한 생각이 든다. 현지 가이드의 말로는 수도물은 절대 먹지 말라하고 환경은 고온건조한 상태인데 어찌란 말인가.....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나라. 그 중에서도 땅끝 마을인 바람의 언덕을 관광한다. 기다림의 나라로 불리어 온 포르투갈의 내력을 알아봤다. 서쪽으로 길게 펼쳐진 바다와 동쪽으로는 길게 뻗어 있는 스페인과의 국경. 그들은 결국 바다로 떠나야 했다. 보물이 가득한 인도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



안개에 쌓인 바람의 언덕

로 그들은 떠나고 또 떠났다. 돌아오는 자는 10%도 안됐지만 그래도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귀향하겠다는 꿈을 꾸며 평생을 벌어서 마련한 돈으로 배를 사고 사람을 사서 항해를 했던 것이다. 가족들은 모두가 바다를 바라보며 가장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염원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오랫동안 그늘진 역사 속에서 묻어난 얼굴 표정인 듯 무표정한 모습들이다.

표정은 밝지 않지만 국민성은 느긋하고 매사 서두르지 않는 습성이다. 대다수의 사람

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되었지만 그들은 인도를 발견하고 브라질을 발견하면서 경제적 여유를 얻기 시작했던 것이다.

배를 타고 꿈을 찾아 떠났던 남편을 기다리다 결국은 바닷가에서 목숨을 잃은 아녀자들도 많았다는데 지금의 그들은 조상들의 용감한 개척정신을 찬양하고 있을 것 같다.

땅끝 마을의 이름은 「로카곶」이라는데 천애의 절벽 끝자락에서 끝없는 대서양을 바라보며 오랜 역사속에 묻힌 이곳 여인들의 애절한 기다림에 다시 한 번 숙연해짐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곳은 갑자기 운무가 몰려와 한치 앞도 못 보게 가려 버린다.

포르투갈의 민족성은 아마도 우리와 흡사한 것 같다. 외세의 침탈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 등 내면에 쌓인 한과 설움이 겹쳐있는 듯 거리에 흘러나오는 음악도 절규와 흐느적 거림이 느껴진다.

떼쥬강가의 개선문은 멀리서나 느껴보며 시가지 관광을 제대로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고대 건물들은 대부분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고 유럽특유의 문양과 장식으로 미술적 가치가 무한해 보인다.

점심에는 돼지 뒷다리를 통째로 소금에 절



로카곶-바람의 언덕



떼쥬강가에 있는 발견의 기념탑



알함브라 궁전

여 자연 건조한 스페인식 음식인 “하몽”이라는 것도 먹어봤다. 풍발 후작 광장, 상조르제 성, 제로니모스 수도원 등을 탐방했지만 안내자의 설명이 난해하게만 들림은 이곳의 역사를 공부하지 못하고 왔기에 수용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상조르제 성도 황혼과 더불어 볼 때 최고의 환상적 장면이 연출되지만 우린 한 낮에 그곳에 갔으니 그저 오래된 건물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구나 하는 정도에 그쳤다.

여행을 하려면 그 곳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쌓고서 해야 비로소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한반도의 약 2.5배 넓이의 국토에 인구 1,150만명 밖에 안되고 수도인 리스본의 인구도 200만 정도이니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페루강의 거대한 현수교의 길이가 2,278m라는데 멀리 바라보면서 차창으로 사진한 것 찍어보는 정도였다.

스페인의 남쪽 안달루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세비야로 가고 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금융의 도시로 불리는 세비야에 기대해본다.

스페인의 4대 도시에 들어가는 제법 큰 도시였다. 내륙에 위치해있으면서도 과달키비르강을 이용해 배가 드나들 수 있었던 곳이다. 도시는 평야지대에 자리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소란스럽지 않은 고즈넉한 도시 같았다. 4대 도시로는 수도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비야이다. 그런데도 도시의 인구가 70만명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도시의 표어는 NO 8 DO : No me ha dejado. (성모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들의 신앙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19세기 이후 스페인의 산업화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면서 문화, 예술, 금융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에스파냐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과달키비르강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이고 철강, 직물, 도자기 등의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로마시대와 이슬람 시대의 유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라틴계의 스페인 문화와 북아프리카 문화(모로코 등), 유대인 문화, 아랍권 문화들이 절묘하게 어루러져 다양한 문화유산과 예술이 잔존하는 특수한 도시였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며 아프리카, 스페인 등 지중해로부터 여러곳의 문물을 접하는 곳으로 특이한 국민성을 느낄 수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느껴보지 못한 외래인들을 배척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서로 다른 언어, 풍습, 종교 등의 갈등으로 빚어진 많은 전쟁사를 겪으면서 얻은 민족성인 듯하다. 때로는 서로 배려와 타협을 거치면서 그런 흔적들이 잘 남겨진 도시로 비춰졌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공연예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공연문화를 창출하는 ‘국립극장’

전통과 현대 예술의 공존, 한국 공연예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국립극장은 수천 년 동안 전승되어온 한국 전통 공연예술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한국 예술의 독창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50년에 탄생한 국립극장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지난 60여 년간 한국 공연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산실이다. 한국 전통 예술의 현대적인 재창조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립극장 내 3개 전속단체(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특성에 맞는 창작 작품 제작과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청소년공연예술제를 통한 국제문화교류 활동, 계절별 축제, 주말문화광장,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학생을 위한 감상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또한 국립극장은 〈청소년공연예술제〉와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학생을 위한 감상교육, 전통 문화예술의 관객 저변 확대를 목표로 〈국립극장 고고고〉를 기획하는 등 국민 문화 향수 확대를 위한 국립극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하반기에는 ‘공연예술박물관’의 개관을 통해 과거와 현재, 한국 공연의 모습을 반추하는 교육공간이 되고 있다.

>> 국립창극단

300년 판소리 역사가 만들어낸 한국의 음악극, 창극

순수 전통공연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향의 공연을 통하여 창극의 활성화에 꾀하고 있는 국립창극단은 판소리의 5대가(심청가, 춘향가, 적벽가, 수궁가, 흥보가)를 중심으로 관객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완창판소리〉, 2010년 신설된 국내 최초 판소리 브런치 콘서트인 〈정오의 판소리〉가 상설무대를 장식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창극 시리즈’를 통한 창극의 무대화는 동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큰 반향을 내고 있다.

대표 레퍼토리 : 국가브랜드공연 〈청〉, 〈춘향2010〉, 젊은창극 〈로미오와 줄리엣〉, 판소리브런치콘서트 〈정오의 판소리〉



>> 국립무용단

화려한 듯 섬세하고, 우아한 듯 역동적인!

1962년 창단,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체로 자리 잡아온 국립무용단은 송범, 조흥동, 최현, 국수호,



배정혜, 김현자, 배정혜로 이어지는 예술감독 계보로 알 수 있듯이 최고의 춤 예술가들의 꾸준한 지도로 전통 춤을 계승하는 한편, 동시대의 관객들이 함께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한국 춤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수많은 해외 공연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한국 전통무용의 화려하고 섬세한 맛을 선사해 왔다.

대표 레퍼토리 : 국가브랜드공연 〈춤·춘향〉, 〈코리아 환타지〉, 〈Soul, 해바라기〉, 〈프린세스 공주〉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통과 파격의 두 얼굴로 국악의 경계를 넘나든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기로 편성된 국립 오케스트라로, 1995년 초대 단장 박범훈을 중심으로 창단되었다. 2대 단장 한상일과 3대 예술감독 최상화를 거쳐 현재 가야금 명인 황병기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특히 개량된 국악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한국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그 외에도 연주기법의 다양화와 창작품 개발, 장르·국적·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진취적이고 과감한 레퍼토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숨쉬는 예술단체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표 레퍼토리 : 국가브랜드공연 〈네 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 창작음악회〈어부사시사〉, 어린이음악극 〈엄마와 함께하는 국악보따리〉, 〈뛰다 뛰다 타다〉, 국악브런치콘서트〈정오의 음악회〉



>>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세계 각국의 대표공연, 국립극장에서 만나다!

해마다 가을(9~10월)이면 국립극장에 세계 각국의 국립극장 단체들이 모여든다. 세계의 공연예술 수준을 보여주는 국립단체들의 대표공연들을 초청하여, 관객들에게 세계적인 공연예술 트렌드를 읽고 각 나라의 고유한 공연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공연예술제들이 새로운 성향의 개성있는 공연 초청에 주안점을 두는데 비해,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은 각국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전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 어우러진 공연들로 구성하여 국내외 관객들의 심미안을 충족시키고 있다.

>> 공연예술박물관

2009년 12월 23일 국내 최초로 공연예술 자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할 수 있는 공연예술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축적된 공연예술 자료들은 역사적 기록이자 창작예술의 밑거름으로써, 예술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공연예술박물관 탄생은 그 의미가 깊다.

한국 공연예술 역사의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실이외에도 18만여 점의 국내외 공연 자료를 열람해 볼 수 있으며 매년 두세 차례 기획전시가 열린다. 6월에는 무대 위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제작하는 무대디자인을 주제로 <무대 뒤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가제)라는 기획전이 열릴 예정으로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다양한 무대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다.

■ 해오름극장 / Main Hall Hae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극장의 대극장으로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종합 무대 공간이다. 1,563석의 객석과 24석의 대기석,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한 무대, 최첨단 조명설비와 음향시스템이 완비되어있다. 특히 국내 극장 가운데 객석 간격이 가장 넓어 쾌적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 달오름극장 / Small Hall Dal

프로시니엄 무대를 갖추고 있는 427석 규모의 중극장. 국립 예술단체들의 대표 레퍼토리 및 상설 공연을 소화하며 주로 연극과 창극 전용극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KB국민은행 청소년하늘극장 / KB Haneul Youth Theater

국내 최초의 전천후 돔형 공연장.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2008년 4월30일 재개관. 개폐 가능한 지붕. 732석의 객석, 냉난방과 차음·차양설비, 아름다운 조경과 야간 조명 갓춤, 남산생태와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극장이다.

■ 공연예술박물관

2009년 12월 23일 국내 최초로 공연예술 자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할 수 있는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 명 칭 : 국립중앙극장
- 개 관 : 1973. 10. 17 현 국립극장 중구 장충동 신축 개관
- 시설현황 :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KB국민은행 청소년하늘극장, 공연예술박물관
- 위 치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②번 출구에서 국립극장 셔틀버스를 이용 (공연 1시간전부터 10분 간격으로 운행)
 - ⑥출구에서 02번, 05번 남산순환버스 이용
- 공연 및 안내 : 02)2280-4114 ■ 홈페이지 : <http://www.ntok.go.kr/>



안다위 한묵연실

안다위 한묵연실의 시초를 만든 한국서예비림협회 회장 효계 박성호씨를 만나 보았다.

Q 안다위 한묵연실의 창립 동기와 회원이 궁금합니다.

A 서울을 다니며 여초 김응현 서파에서 서예 공부하던 중 서산지방에 정통서법을 전하고 싶어 동호인을 모집하여 2000년 3월 음암면 부장리 지역에 30여평의 서실을 자비로 만들어 놓고 무료로 현재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다위 한묵연실」이란 이름은 서실이 있는 부장리 1구 마을을 옛날부터 ‘편안한 땅’이라는 뜻으로 “안다위(安多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한묵연실(翰墨緣室)”은 글과 먹으로 인연을 맺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회원은 주로 공직에서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많으며 7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안다위 한묵연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A 법첩에 의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고서 30여첩을 공부하고 있고 연중 행사로 회원전을 열어 지금까지 총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도 서산문화원에서 11월에 8회째 정기전시회를 계획중입니다.

또한 한·중·일 교류전을 매년 2회씩 개최하고 회원들이 전국 공모전, 초대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얻어 전국 공모전 대상 수상자만 5명을 배출하였습니다.

Q 서산에는 많은 서예단체들이 있습니다. 안다위 한묵연실만의 자랑이나 특성이 있다면?

A 우리 서실에서는 서예 공부를 법첩에 의한 정통 서법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생이 체본을 써주지 않고 글씨 쓰는 서법을 지도하며 글씨 발달사 대로 공부하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 하고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전서→예서→행서→해서→초서 순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Q 서예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서예를 배우려면?

A 심신이 건강하게 되고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며 선비 정신이 함양되어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됩니다. 성취감에 흥이나서 젊어지며 정신운동을 계속하여 치매에 걱정이 없어집니다. 또한 동호인과 만남이 있어 고독하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배워보길 권합니다.

Q 선생님은 평생 서법전수에 힘써 오셨고 2008년 서산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다위 한묵연실을 이끌어 오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지도하면서 수업하는 자들의 성장을 보는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시골 서실에서 수법한 제자들이 한국서단의 중견으로 자리잡아 전국공모전 대상이 다섯명 태어나고 한국 전체 서예인 모임인 갑자회(甲子會)에 네 사람이 입회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늙어서 많은 시간이 없어 충분히 지도할 시간이 짧아진 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 안다위 한묵연실의 앞으로 계획과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A 현재대로 한국 전국 서예인과 함께 어깨를 겨루고 한국 서단을 이끄는 중견으로 많은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지도하고 있는 태안, 운산 보건소, 서산문화원도 열심히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서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 고향은 서산

류 인 석 (수필가)

나이가 들수록 추억은 젊어지는 모양이다. 오랜 세월의 등을 넘어 뿌옇게 빛바랜 사연들 이건만 추억은 언제나 맑게 솟아난다. 그래서 어느 문호(文豪)는 추억을 가리켜 “삶을 찌지 않게 하는 소금” 이라고 했던가.

이토록 추억은 잊혀 질 수 없는 옛 시간의 간절한 언어들. 아름다운 문장과 아름다운 시가(詩歌) 치고 추억의 사연과 연관되지 않는 게 별로 없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은 역시 어릴 적 고향 추억이다.

내 고향은 서산(瑞山)이다. 죽어서도 묻힐 곳이다. 어릴 때만해도 내 고향 서산은 말 느리기로 유명한 강촌의 대명사였다. 생활문화가 다 그랬었다. 땀띠 극성 때문에 짧은 밤잠 설치고 나면 다음날 아침밥도 거른 채 10리길 학교로 달려야 하던 여름날 추억이 떠오른다.

밤잠 설치 날의 아침 보리밥은 왜 그리도 뜨거웠는지, 한 두 수저 뜨다만 채 책보 들쳐 메고 달려 나가는 어린 것 등 뒤에서 어머니 가슴은 번번히 안타까움으로 조여들었다. 오후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허기가 밀려온다. 파리 떼 새까맣게 덮인 시렁에서 거친 보리밥 한 덩이 바가지 냉수에 말아 마시듯 퍼먹고 나면 어린 몸에도 노곤함이 천근이나 줄음 되어 밀려들었다.

집 모퉁이 감나무 가지에다 나지막하게 들인 평상에 올라 억척으로 울어대던 매미들의 함창소리 자장가 삼아 늘어지게 자고 깨면 어느새 소 풀 뜯기러 나가야 할 시간이다. 소 풀 뜯기는 것은 농사에 바쁘신 아버지가 나에게 몫 지워준 여름날 일과였다. 나뿐이 아니고 이웃집 친구들도 모두 그랬다.

날마다 햇살 설핏해지는 여름날 오후 시간이면 대절(竹寺)밑 별판은 풀 뜯기러 나온 동네 소들의 품평회장이었고, 짓궂은 개구쟁이들의 천국이였다. 애들끼리 신이 나서 소싸움도 시켜보고, 수소 암소 엉겨 붙어 부끄럼 모르고 짹짹 하는 모습을 호기심 꿀꺽대며 지켜보기도 했다.

땅값이 금값 되면서 지금은 대절 밑 풀밭도 없어졌고 소 풀 뜯기던 개구쟁이들의 왁자지껄 하던 풍경도 없어졌지만, 여름만 되면 내 추억은 아직도 그 곳에 가서 서성이곤 한다. 인생에 있어 고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희미한 환영(幻影)인가, 나만의 연민인가.

내가 고향을 떠나 온지도 벌써 60년을 헤아린다. 가난에 쫓겨 생애구책을 찾다보니 정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대전(大田)이다. 각박함이 칼날 같은 타향 객지에서 열심히 뛰어봤지만,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어느덧 석양의 길목에서

빛바랜 추억만 부둥켜 안고 있다.

고향은 마음의 안식처다. 안온함이며, 넉넉함이다. 언제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으며, 그리움이 서린 곳이다. 도시의 하늘 넘어 고향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포근해진다.

계룡산 넘어 금강굴이를 지나, 유구 차동고개를 넘어, 덕산 재빠기에 올라서면 낮 익은 시야가 활짝 열린다. 이곳이 바로 내 고향 서산이다. 굳이 풍수지리학자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안기면 스르르 잠이 올 듯 평온한 곳.

천수만 대호지 가로막아 넓은 들판 기름지고, 해산물 서식하는 절편한 갯벌이 풍요롭다. 화려함 없는 외모이듯, 깎쟁이도 없었고, 모난데 없는 인심엔 야박함도 없었다. 흡사 버섯 등처럼 둥글 넓적한 초가지붕들이 다소곳이 엮으려 도란대던 곳, 감자녹말에 푹 강낭콩 듬성하게 버무린 개떡 한쪽도 빠질세라 이웃 간에 서로 나누던 곱디고운 인정의 고향이 바로 서산이었다.

껍질 채 갈아 만든 거친 밀개떡 몇 쪽, 계 춤에 차고 새벽길 헤치며 뱅 기리나, 동 막 바닷가로 달려가면 파래 김, 재 나물, 빨이 고동, 능정 계, 황발 계가 지천으로 널려있던 바다의 풍요..., 이런 것들이 모두 여름철 서산의 풍광이었으며, 반백년 타향살이에서도 잊어본적 없는 내 고향의 추억이다.

노란 꽃잎 머리에 이고 있는 천사의 그림처럼 초가집 울타리마다 호박꽃들 듬성하게 피어나고, 작은 바람에도 눈부시게 뿌려대던 8월 햇살에 마당가 미루나무 키다리 가지마다 매달리듯, 떼 지어 날아든 까치소리가 인천으로 돈벌이 갔던 삼촌 소식 기다리게 하던 유년시절의 고향 추억...

밤이면 밀집방석 마당에 깔고 누워, 불 지핀

보리꺼럭 무더기 위에 소 풀 한 아름 덮어서 피워낸 연기로 물 컷들 쫓아가며 아스라이 올라다 보이는 은하수 너머까지 어린 꿈 띄어보던 곳.

병모가지에 새끼줄 길게 묶어 뜰 안 샘물 속에 담가두었다가 꺼낸 막걸리 한 대접 들이켜시며 된장 찹은 풋고추 안주에도 백만장자 부럽잖게 즐거워하시던 아버지의 영혼이 계신 곳. 가난 속에 살아도 가진 자 넘보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오로지 부도(婦道) 지켜 사셨던 어머니의 영혼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내 고향 서산이다.

여명의 안개 뽕얇게 흐르고 있는 새벽, 빠그덕 대는 대문소리에 선잠 깨 일어나면 아버지는 벌써 소 풀 베러 들판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밭에 나가 이슬 젖인 치마폭에 애호박 풋고추 한 아름 따 들여 콩밭매기 품앗이 일꾼들의 설 참 먹이 준비로 바쁘셨다.

마지에선 송아지가 방울소리 달랑대며 산골동네가 메아리치도록 엄매소리 외쳐대고, 새벽부터 동네방네 한 바퀴 쏘아댄 검둥개가 흙투성이 꼬리를 살랑대며 아직도 잠 덜 깬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빨간 헛바닥 날름 댈 때면, 어느새 태양은 동구봉산 능선위에 불쑥 솟아 이글대는 8월의 하루를 열고 나갔다.

어찌 나만의 추억이겠는가. 같은 시대에 태어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세대들에겐 거의 비슷한 정서일 것이다. 그 옛날 추억 찾아 귀향을 꿈꿔보지만 이젠 늦었다. 모두가 변해 고향은 이제 타향이 됐다. 내 고향은 서산, 변했기에 더욱 소중한 추억인가.



제21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출전

중도일보가 주최하고 충남도와 청양군이 후원한 제21회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이 5월 20일(금) 오전 10시부터 청양 지천백세공원에서 펼쳐졌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놀이가 잊혀져 가는 상황에서 이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 16개 시·군의 화합과 결속 다지는 뜻 깊은 한마당 축제로 승화된 자리였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속대제전에 참가한 40여 명의 서산문화원과 서산시 대표 선수들은 우리고장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날 민속대제전은 씨름, 줄다리기, 제기차기, 힘자랑, 줄넘기, 널뛰기 등 6개 종목의 승부를 겨뤘으며 서산시는 줄넘기 1위(200점)와 씨름 2위(180점) 등 730점을 획득해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제39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 (전통 성년식)

5월 9일(월) 오후 2시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성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산 한서대학교 캠퍼스에서 제39회 전통 성년례를 시행 하였다.

서산문화원이 주최하고 선다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성년을 맞는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 19명이 참여하였다. 전통 성년식을 거행하는 동안 이를 관람하기 위해 약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성년자들을 축하하였으며 진정으로 어른이 된 다는 의미를 일깨워 주는 자리가 되었다.

전통 성년례는 현대대들에게 생소하며 서구화된 성년례의 의미로 퇴색되어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상고시대부터 면면히 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관혼상제(冠婚喪祭)중 첫 번째 예식인 관례, 계례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성년식을 현대에 맞게 간소화하여 시연함으로써 성년례의 진정한 의미를 널리 알리고 전통을 계승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년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가져왔다.

이번 행사는 서산문화원 문화가족 선다회에서 진행하였으며 가례 축하, 초례축사, 字(자)내림, 성년선서, 성년선언, 수훈 증정 등의 순서로 거행되었다. 또한 행사 후에는 한서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우리 전통 茶(차)를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3회 청소년문학제 시상식



5월 25일(수) 오후 4시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제13회 청소년문학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문학제 행사는 서산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산의 대표적 문인인 윤곤강 선생과 후보 민태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학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행사이다.

지난 4월 9일 서산시 소재한 초·중·고등학생 900여명이 문학제에 참석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총 수상자 69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시상부문은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시상하였으며 최우수상은 서령초등학교 6학년 김지우, 인지중학교 3학년 장다해, 대산고등학교 1학년 정가영 학생이 수상하였다. 수상자에게는 부상과 수상한 학생들의 글을 담은 문집을 전달하였다.

금번 시상식에서 본 문학제를 통하여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로 현 기성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강한 애국정신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이 만연함을 느꼈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윤곤강 시인의 “나비”라는 시를 다시 한 번 읽으며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고 후보 민태원선생의 청춘예찬을 읽고 또 읽으면서 푸른 꿈을 키우고 펼쳐 보며 세상은 꿈을 꾸는 자의 것임을 항상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화

원

소

직

■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반차도 특별전시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모습을 담은 반차도 그림을 특별전시합니다.

- 일 시 : 2011. 6. 25(토)
- 장 소 : 서산문화원 서산향토사료관(3층)
- 내 용 :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중 반차도 복제본 전시
(특별전시 후 상설전시함. 매주 월~금 10:00~17:00)



■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전시회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프로그램을 4개월간 운영하고 수료식 및 수강생 발표, 작품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1. 6. 22(수) 10:00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 문예관람실
- 내 용 : 수료증 및 개근상 시상, 수강생 발표 및 작품전시
 - 발 표 : 문예창작, 전통무용, 요가, 플룻, 바이올린, 장구, 난타, 클라리넷, 중국어 등
 - 전 시 : 한문서예, 도예, 수채화, 한글서예, 한국화, 가베지도사, 리본 공예, POP예쁜글씨, 바른글씨예쁜글씨 (6.22~24까지)

■ 서산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여름특강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1. 6. 20(월)~ 2011. 6. 24(금) 09:00~18:00
- 강의기간 : 2011. 7. 4~ 8. 26 (8주)
- 강의과목 : 문예창작외 15개 과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100%), 오전 9시부터 정원내 선착순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불가)
- 전화접수와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모든 강좌의 재료비는 별도이며 개인부담입니다.
- 자세한 강의계획은 홈페이지 참조(<http://seosan.cult21.or.kr>)
- 문의 : 669-5050(서산문화원 사무국)

※ 본 프로그램은 문화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김기홍 (서산시 지곡면) 10,000원 | • 임선재 (서산시 석림동) 5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김의식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 홍은경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예천동) 10,000원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 • 조문순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심홍식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김시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 • 배병휘 (서산시 부석면) 20,000원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강기현 (서산시 운산면) 20,000원 |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장덕훈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안상진 (서산시 동문동) 50,000원 | • 방승택 (서산시 읍내동) 100,000원 |
| • 이용조 (충북 청주시) 20,000원 | • 김묘규 (서산시 석림동) 200,000원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